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20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수질환경과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수팀장 윤혜용 ☎440-3631 • 담당자 김선아 ☎440-36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높인다.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은 인천광역시 8차 표준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안전관리 시설과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저귀 교환대 등도 법적 기준에 따라 함께 설치한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공중화장실에 누구나 편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올해 신·개축 공중화장실 9개소, 15억7천여만 원 투입 -
 - 다양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 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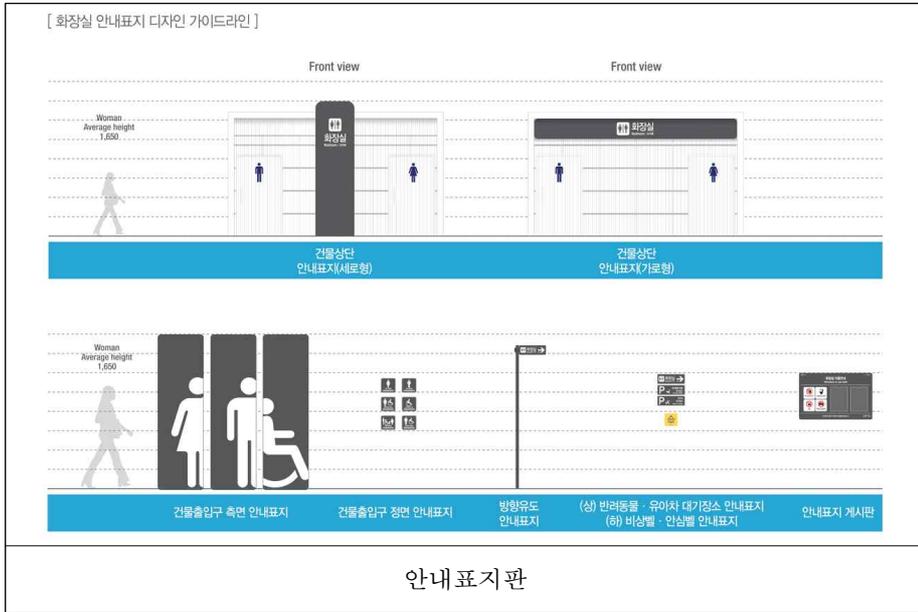
인천광역시는 올해 신·개축 사업 예정인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필수적용 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나이, 국적, 신체 조건, 장애 유무 등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정보·서비스 등을 실현하는 디자인 방법론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5억7천여만 원(군구비 포함)을 투입해 5개 군·구(중구, 미추홀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9개소의 신·개축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면 밖에서는 누구나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대형 그림문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한편 화장실 내부에서는 누구나 접근 및 사용이 편리하도록 높이가 다른 세면대가 설치되고, 변기·세면대 등 흰색의 위생도기와 대비되는 마감재를 사용해

[붙임1] 유니버설디자인 예시



높이가 다른 세면대



위생도기와 대비되는 마감재